

목포시, 글로벌 마케팅 한류팬에 '성큼'

한국관광공사 이어 한국문화축제에도 홍보 7일까지 오후 6시 유튜브 통해 전세계 공개

대한민국 4대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목포시가 전세계로 홍보되며 해외 관광객 유치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목포는 최근 한국관광공사의 'Feel the Rhythm of Korea 목포편'으로 전세계적 주목을 받는데 이어, 잠재적 방한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주관으로 추진되는 '2020 한국문화축제'에도 홍보된다. 이번 행사는 목포를 비롯한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 도시의 지역별 특징을 k-컬처와 연계한 콘텐츠를 제작해 한류팬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목포는 2일부터 7일까지 'K-레트로 시티, 한국 근대문화유산과 K-트

롯'을 주제로 아이돌 그룹 '아스트로' 문빈과 산하, 가수 황치열의 진행으로 소개된다. 목포의 음식, 관광지, 이색체험, 한류콘텐츠 등과 체험 프로그램 '가드림', 맛의 도시 목포의 먹거리를 소개하는 'k-푸드 in 목포'가 유튜브 채널 '한국문화축제'와 'SBS Entertainment'를 통해 6일간 매일 오후 6시에 전 세계에 공개된다. 8일 오후 11시에는 골든차일드, 나태주, 남진, 박현빈, 조정민 등 유명 트로트 가수들이 목포의 낭만을 알리는 트로트 공연을 진행한다. 유튜브 채널

'한국문화축제', 'SBS케이팝', '코리아넷'에서 생중계되고 9일 오전 0시 5분부터는 지상파 채널 SBS를 통해 방영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진정 후 국내 홍보는 물론 4대관광도시에 걸맞는 도시가 되고자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케이팝에 집중된 잠재적인 한류 관광객들의 관심을 한국문화로 확산시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에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동양 최대 규모' 신안 우이도 '풍성사구' 훼손 원인은 무엇?

"풍성사구(風成砂丘)의 훼손은 사람의 출입이 아니라 사구 주변의 무성해진 나무가 바람에 실려오는 모래공급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남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둔목마을회관에서 열린 '동양 최대 규모' 신안 우이도 '풍성사구'의 훼손 원인을 밝히기 위해 공무원과 섬 연구·활동가, 주민 등이 참석한 현장토론회가 열렸다. 우이도 풍성사구는 바람에 실린 모래가 쌓이면서 형성된 동양 최대의 규모로 알려져 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대표적 경관자원으로

대 후반까지 수백 마리의 소와 염소가 사구 일대를 오르내리며 풀을 뜯어 먹었는데 모래가 바람에 잘 날려서 사구의 원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사구 주변의 나무가 빨갛게 염색되면서 남풍이 불면 자연스럽게 산태(산비탈)에 모래가 쌓였으나 빨갛게 염색이 없어지면서 나무들이 백백이 들어갔고, 이 때문에 모래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훼손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며 작은 결실도 도출했다. 정상까지 열려 있는 탐방로를 방

무성한 나무가 모래 공급 막아...출입통제만이 능사 아냐 국립공원관리공단 "인근 사유지 매입·잡목 제거해 복원"

신안군 향도유적 제9호로 지정됐다. 1990년대 높이가 70~80m, 폭이 밑쪽 20m, 위쪽 50m에 달했으나 지금은 높이가 30m 이상 낮아졌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우이도 사구 지형변화에 대한 복원 모니터링을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하면서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5년 단위로 연장되는 통제는 올 7월 15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2025년까지 재연장하면서 주민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소와 염소를 기르고 땀감으로 나무를 베어서 연료로 쓰던 시절에는 사구 주변에 나무가 전혀 없었기에 모래가 충분히 공급돼 사구가 유지될 수 있었다"면서 출입통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은 통제 중심의 정책이 훼손된 사구를 복원하는데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강제윤 섬연구소 소장도 "1990년

문객들이 알 수 있도록 '보행 유도 안내판'을 설치토록 했다. 국립공원 측은 사구 정상까지 오를 수 있는 우회 탐방로를 만들어 놓았으나 방문객들은 인지하지 못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탐방로를 벗어나면 단속을 하겠다는 표시를 해 단속이 아닌 안내 중심 탐방 정책을 펴기로 합의했다. 또 공단 측에서는 사구 인근의 산지(사유지)를 매입해 잡목들을 제거해 복원에 나서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연구 및 학술용역을 발주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설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풍성사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모래 언덕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지속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 면담을 통해 사구의 복원과 개방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영광군, 심뇌혈관 건강지킴이 교실 운영 11개 보건진료소 주민 및 만성질환자 137명 대상



영광군은 11개 보건진료소 지역 주민 및 만성질환자 137명을 대상으로 9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5회에 걸쳐 '보건진료소 중심 심뇌혈관 건강지킴이 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내용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체조, 마스크를 목에 걸고 다닐 수 있는 마스크 스크랩 만들기,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자기혈관 숫자알기 및 식이요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환기가 잘되는 모퉁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론, 발열체크 및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행하였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증이 장기화되면서 두려움과 불안이 커지고 외출 자제 및 자녀들의 방문이 어려워 우울감이 증대되는 주민들에게 심리적 방벽이 필요했던 만큼 보건진료소 중심 심뇌혈관 건강지킴이 교실은 주민들의 마음에 활력을 심어 주었다. 운영회 보건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주민들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건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대면 또는 소집단으로 보건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영암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SMART로 재탄생하는 영암읍·국비 76억 확보

영암군은 지난 3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로부터 '영암읍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최종 승인받아 국비 76억원을 확보했다. 영암군은 이번에 확보된 국비 76억과 지방비 50억, 기금 8억, 민간투자 34억 등 총 168억여 원을 투입해 내년 부터 2024년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 쇠퇴하고 있는 구도심을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만들고 상권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영암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일반근린형으로 주거지와

골목상권 혼재 지역에 공동체 거점 조성 등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꾀하는 유형이며, 역리·동무리·서남리 일원 163,714㎡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S.M.A.R.T로 재탄생하는 영암'이라는 비전으로 추진되는 영암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안전한 영암(Safe), 골목이 즐거운 영암(Market), 매력 있는 영암(Attraction), 새롭게 시작하는 영암(Refresh), 함께하는 영암(Togehter)이라는 전략으로 추진된다.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과 스마트 안전도시 시스템을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영암=조대호 기자

무안군, 女창업 원데이 교육 수강생 모집 내일까지 70명 선착순 접수 생활자수·캔들 등 7개 강좌

무안군은 오는 6일까지 여성 취업 역량 강화와 경제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2020년 여성창업 원데이 교육 수강생 7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교육은 ▲생활자수 ▲캔들 ▲마카롱 ▲라탄바구니 ▲석고방향제 ▲샐디저트 ▲플라워 7개 강좌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시간은 2-3시간이다. 교육대상은 신청일 현재 무안군에 주소로 둔 경력단절 여성이며 고용보험가입자와 사업자,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수업은 남약 또는 무안을 청년상가에서 11월 중 1~2회 실시된다. 각 읍면사무소에서 수강신청을 접수



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다문화팀이나 각 읍면 주민생활팀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자격반 취득 등 장기교육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 창업단기 수업을 추가로 개설했다"며 "이번 교육이 경력단절 여성의 역량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안=이거성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의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